

남북한 마취과학 관련용어의 비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마취과학고실

김원옥 · 김혜금 · 강정완 · 김광희

- Abstract -

Comparison of Anesthesiology Related Terminolog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on Oak Kim, M.D., Hae Keum Kil, M.D., Jeong Wan Kang, M.D.
and Kwang Hee Kim,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Terminology is a good index of reflections in conceptional imaginations, trends and technological advances in the field of their own.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of terms in anesthesiology to evaluate the communicabili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se results may be particularly helpful during the next step of making glossary, academic communication and the searching of social unity at the time of reunion.

Methods: Several books and indexes written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data from seminars were obtained. Multiple terms were then drawn from these data. These terms were used to make a comparison between South and North side.

Results: Both side does not use a Chinese character in their books and indexes, even though many terms stem from a Chinese character. North side had more terms of native language than South side. There were some different terms because of each other's rules of grammar. Several terms were confusedly used in both side. In some of combined terms, words were reversed in their orders.

Conclusions: We conclude that terminology using i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field of anesthesiology is not so far way and both side can be capable of communication without any difficulty. But both have many areas to be filled with terms of native language to have identity. (Korean J Anesthesiol 1995; 30: 31~40)

Key Words: Publication; terminology

서 론

무릇 언어란 그 말과 글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더

논문접수일 : 1995년 8월 30일

심사완료일 : 1995년 12월 1일

*북한 관련자료는 통일원 북한자료센터(타)(광화문 소재, Tel. 730-7013,4)에 있는 통일원자료분류, 특수 3783, 3570(자연과학, 의료부분)에서 얻어진 것이다.

불어 살아 있는 객체로 존재한다. 언어가 그러하듯이 하나의 학문 속에서 용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개념적 상상력과 시대적인 영향, 사회문화적인 역량 그리고 기술적인 진보상태를 나타내주는 중요하고도 총체적인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가고 있는 현시대에서 발전된 기술과 새로운 개념을 담아주고, 나타내주는 용어의 중요성은 그 의미가 간단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 자리한 남한과 북한은 일제시대로부터 해방되기 이전까지 오랫동안 같은 말과 글을 사용하면서 생활하고 살았다. 그러나 양쪽으로 서로 갈라지면서 이념적인 대립과 각기 다른 선진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의 낱말들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방으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정보의 부족과 의사소통의 단절 속에서 우리는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같은 전문분야의 용어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마취과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관련 전문 의학용어의 차이와 비슷한 정도를 비교하고 알아보는 것은 단순히 흥미차원을 넘어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학문상으로 이질성을 극복하는 디딤돌로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장차 예상되는 통일을 대비하고 또한 학문적 교류, 사회적 통합작업에 필요한 노력의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우리의 용어 다듬기와 만들기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믿어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먼저 남한의 마취과학 관련 용어는 1988년 대한마취과학회에서 발행한 용어집¹⁾, 1994년 대한마취과학회지 색인집²⁾을 중심으로 1992년 의협발행 의학용어집³⁾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외에도 국내 마취과학 관련 서적과 찾아보기를 참고로 하였다⁴⁻¹¹⁾.

북한의 용어는 마취학¹²⁾, 국어 의학용어사전(라-조-로-영-독-프)¹³⁾, 영조의학용어 조성사전¹⁴⁾, 산부인과 전서 10: 수술편¹⁵⁾, 조선말 대사전¹⁶⁾, 심장구급소생¹⁸⁾, 그 밖의 서적¹⁹⁻²³⁾에서 마취과학 관련 용어를 찾았다.

때에 따라서는 북한쪽의 마취과학 관련 참고 자료서적이 모자라서 간접적으로 그 용어를 더듬어 들어갔다(예를 들면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책에서 마취관련 용어 찾기). 그리고 대한의협 주관의 각과별 의학용어 세미나¹⁷⁾에서 얻어진 북한용어도 참고 자료로 삼았다.

결 과

용어를 펼쳐 보이는 순서는 남한 - 북한 - 영어용

어의 차례로 하였다. 그리고 손톱묶음(팔호)속의 1965는 참고문헌 12의 년도이며, 그후 다르게 변한 것과 함께 적었다. 주어진 공간이 많지 않아 항목의 순서에 따라 내용의 일부만을 여기에 펼쳤다.

1) 토박이말을 사용한 용어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남북한에서 의학용어 만들기에서 토박이말을 북한쪽에서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다. 북한쪽 용어에서는 토박이말은 전체, 때로는 한자어와 같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용어에서는 토박이말은 용어 전체를 토박이말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날 - 시야판 - Blade
- 손잡이 - 자루(손잡이) - Handle
- 서맥 - 느린맥, 서맥 - Bradycardia
- 빈맥 - 잦은맥 - Tachycardia
- 피부 - 살갓, 피부 - Skin
- 혈뇨 - 피오줌 - Hematuria
- 전신 - 온몸 - Whole body
- 여과 - 거르기 - filtration
- 이뇨제 - 오줌내기약, 리뇨제 - Diuretics
- 혈관, 맥관 - 피줄 - Vessel
- 마미 - 말꼬리 - Cauda equina
- 이환율 - 병걸린율 - Morbidity
- 혈관수축 - 피줄수축 - Vasoconstriction
- 진통제 - 아픔멧이약 - Analgesic
- 근육통 - 근통(힘살아픔) - Myalgia
- 수면제 - 잠약 - Sleeping pill
- 노화 - 로화(늡기) - Aging
- 흡기 - 들숨, 흡기 - Inspiration
- 복통 - 배아픔 - Abdominal pain
- 호기 - 날숨, 호기 - Expiration
- 복수 - 배물 - Ascites
- 신장 - 콩팥 - Kidney
- 흉통 - 가슴통, 가슴아픔 - Chest pain
- 두통 - 머리아픔 - Headache
- 횡격막 - 가슴막 - Diaphragm
- 수흉 - 가슴물 - Hydrothorax
- 흉막, 늑막 - 가슴막 - Pleura
- 호흡곤란 - 숨가쁨 - Dyspnea
- 적혈구 - 붉은피알 - Erythrocyte
- 백혈구 - 흰피알 - Leukocyte
- 간경변증 - 간경변(증)(간굳어지기증) - Liver cirrhosis
- 복식호흡 - 배숨(쉬기) - Abdominal respiration

폐쇄성호흡 - **폐킵**호흡 - Obstructive respiration
 고장식식염수 - 고장소금물 - Hypertonic solution
 심계항진 - 가슴두근거림 - Palpitation
 응고제 - **피떡**약 - Coagulant
 재갈 - **물개**, **이*발마개**(교자)(1965) - Bite block
 구역과 구토 - **메스꺼움**과 **게우기** - Nausea and vomiting

2)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한 용어들을 살펴보면 남한쪽 용어는 일부에서 독일어 읽기로 나타내고 있고 대부분은 영어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북한쪽에서는 독일어식, 영어식과 러시아식 용어 표현이 일부 눈에 띄고 있다. 또한 남북에서 공통적으로 일본식 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고, 단위는 다같이 국제표준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시클로프로판 - **치(찌)**클로프로판 - Cyclopropane
 실로카인 - **키실로카인**(리도카인) - Xylocaine
 속 - **쇼크** - Shock
 스트레스, 긴장 - **스트레스**, **긴장**, **캘깁** - Stress
 카테테르 - **카테테르** - Catheter
 옥시토신 - **옥시토젠** - Oxytocin
 시토크롬 - **찌토크롬** - Cytochrome
 석시닐콜린 - **숙찌닐콜린**클로리드(SCC), **숙치쿨란** - Succinylcholine
 아두골반불균형 - CPD - Cephalopelvic disproportion
 단위: cm, mmHg, pH, mg, ml, mmol, Kg, cmH₂O, kPa

3) 남한용어와 완전히 다르거나 문맥상으로는 파악이 가능한 북한용어가 일부 있다.

스타일렛, 탐침 - **만도린** - Stilet, stilette, stylet, stylette
 남한쪽 용어 없음 - **GOF**(아산화질소+산소+할로탄),
GOE(아산화질소+산소+에테르)
 청색증 - **자남증** - Cyanosis
천연성무호흡: 북한용어로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 호흡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미오렐락신: “숙치쿨란(SCC)”으로 북한에서 표현하고 있는 탈분극성근육이완제와 동일한 약물로 추정되는 약물 이름.
강화마취제: 염산모르핀, 프로메돌, 펜타닐, 드로페리돌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추정된다.
 위내용물의 **오연**: 흡인(aspiration)으로 해석되는 용어.

4) 통증용어의 표현에 있어서 북한쪽 용어는 거의 토박이말로 되어 있다.

복통 - **배아픔** - Abdominal pain

근육통 - **근통**(**힘살아픔**) - Myalgia
 흉통 - **가슴통**, **가슴아픔** - Chest pain
 두통 - **머리아픔** - Headache
 치통 - **이쪼기** - Dentalgia
 요통 - **허리아픔**, **요통** - Back pain
 방사성 동통 - **방산성아픔** - Radiating pain

5) 남북 공통으로 혼동되게 사용하는 경우로 남쪽에서는 endotracheal tube, double-lumen endobronchial catheter(tube)를 기관내튜브, 이중관기관지 카테테르(튜브)로 나타내어 tube, -catheter를 같은 tube임에도 튜브와 카테테르로 구별한다. 반면에 북한용어는 endotracheal tube, double-lumen endobronchial catheter(tube)에서 tube, -catheter를 모두 카테테르로 표현하고 있다. 양쪽 모두에서 intubation은 기관내삽관, catheter는 카테테르로 나타내고 있다.

또 남한에서는 regional anesthesia와 local anesthesia를 각각 부위마취, 국소마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대하여 같은 의미로 북한에서는 국소마취, 국소침윤마취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6) 맞춤법과 표기의 차이에 의해 달라진 용어

- (1) 두음법칙의 차이에 의한 보기
 냉동, 냉각(남) - **랭각** - Refrigeration
 양폐 - **량폐** - Both lung
 연결관, 연결기(남) - **런결관** - Connector
 늑골 - **룩골** - Rib
 사구체여과 - **토리체려과** - glomerular filtration
 유량계 - **류량계** - Flowmeter
- (2) 표준어(서울)와 문화어(평양)의 차이에 의한 보기
 폐쇄 - **폐쇄** - Closed 양폐 - **량폐** - Both lung
 엉덩이 - **엷탱이** - Hip
 폐 - **폐** - Lung
 항문 - **흥문** - Anus
- (3) 북한쪽 용어에는 사이 시옷을 허용하지 않으며,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치아 - **이밭** - Tooth 핏줄 - **피줄** - Blood vessel
- 7) 남한에서 같은 의미를 순서를 바꾸어 사용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마취유도 - **유도마취**, **마취유도** - Induction
 마취유지 - **유지마취** - maintenance

평활근 - 활평근 - Smooth muscle

8) 남북한 양쪽에서 전문용어의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특히 이점은 북한쪽이 확실하게 실시하고 있고 남한쪽은 책마다 들쭉날쭉한 편이다. 북한쪽의 보기는 다음과 같다.

“피가스산염기(blood gas acid-base)”, “저분자덱스트란(low molecular dextran)”, “폐말초피줄(pulmonary end capillary)”, “피점조도(blood viscosity)”, “디기탈리스치료(digitalis therapy)”, “구속성환기장애(restrictive lung disease)”, “폐쇄성환기장애(obstructive lung disease)”, “심장피줄계통(cardiovascular system)”으로 모두 하나의 용어처럼 붙여 쓴다.

9) 자주 사용하는 마취학 관련용어들에 대한 보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구 및 장비

① 용어가 다른 보기

- 바라라임 - 바름석회 - Baralyme
- 날 - 시야판 - Blade
- 기관내튜브 - 기관카테테르 - Endotracheal tube
- 손잡이 - 자루(손잡이) - Handle
- 비인두기도유지기 - 비인두기관 - Nasal airway
- 재갈 - 물개, 이' 발마개(교자)(1965) - Bite block
- 기도, 기도유지기 - 통기관 - Airway
- 기통 - 가스병 - Cylinder
- 백과 마스크 - 숨주머니마스크 - Bag and mask
- 낭 - 숨주머니 - Bag
- 호흡기 - 환기기구 - Ventilator
- 와이(Y)아답타, 와이(Y)형연결관 - Y 자관 - Y-adapter
- 압력제한인공호흡기 - 종압식인공호흡기 - Pressure preset ventilator
- 용량제한인공호흡기 - 종량식인공호흡기 - Volume preset ventilator
- 시간설정인공호흡기 - 정시식인공호흡기 - Time-cycled ventilator
- 기관지 카테터 - 기관내마취용삽관봉 - Bronchial catheter
- 이중관기관지 카테터, 양공기관삽관 - 양측기관지카테테르, 쌍관삽관봉 - Double-lumen endobronchial catheter

② 용어가 같은 보기

- 마스크 - 마스크 - Mask
- 인공호흡기 - 인공호흡기 - Respirator
- 기화기 - 기화기 - Vaporizer
- 후두경 - 후두경 - Laryngoscope

기관검자 - 삼관검자 - Tracheal forcep

- 기낭 - 기낭 - Cuff
- 분무기 - 분무기 - Atomizer
- 부표 - 부표 - Bobbin

(2) 약물

① 용어가 다른 보기

- 옥시토신 - 옥시토젠 - Oxytocin
- 진통제 - 아픔밋이약 - Analgesic
- 다이하제팜 - 디아제팜 - Diazepam
- 펜타조신 - 펜타조젠 - Pentazocine
- 전투약 - 마취전약주기 - Premedication
- 할로탄 - 할로탄, 할로센 - Halothane
- 메토시플루렌 - 메토키씨드르렌 - Methoxyflurane
- 엔푸르렌 - 엔프르렌 - Enflurane
- 석시닐콜린 - 숙찌닐콜린클로리드(SCC), 숙지콜린, 삭시닐콜린 - Succinylcholine

② 용어가 같은 보기

- 마취제 - 마취약
- 길항제 - 길항제
- 근육이완제 - 근육이완제
- 아트로핀 - 아트로핀
- 에페드린 - 에페드린
- 케타민 - 케타민
- 디투보쿠라린 - 디투보쿠라린
- 갈라민 - 갈라민
- 아산화질소 - 아산화질소
- 에테르 - 에테르
- 할로탄 - 할로탄
- 파블론 - 파블론
- 탈분극성근육이완제 - 탈분극성근육이완약
- 페티딘 - 페티딘
- 스코폴라민 - 스코폴라민
- 디기탈리스 - 디기탈리스
- 페노바르비탈 - 페노바르비탈
- 모르핀 - 모르핀
- 드로페리돌 - 드로페리돌
- 펜타닐 - 펜타닐
- 독사프람 - 독사프람
- 티오펜탈 - 티오펜탈
- 아드레날린 - 아드레날린
- 덱스트란 - 덱스트란

(3) 마취방법

① 용어가 다른 보기

미추마취 - 미골마취 - Caudal anesthesia
 통기법 - 취송법 - Insufflation
 안장차단 - 안상척추마비(1965) - Saddle block
 유도저혈압 - 인공저혈압 - Induced hypotension
 국소마취 - 국소차단, 마비(1965) - Local anesthesia
 두부후굴법 - 머리후굴법 - head extension
 부위차단 - 재단마비(1965), 봉쇄 - Regional block
 부위마취 - 국소마취 - Regional anesthesia
 천골차단, 천골마취 - 천추강(상)마비 - Sacral block
 알코올차단 - 알콜봉쇄 - Alcohol block
 신경이완무통 - 신경완화무통 - Neuroleptic analgesia
 미추마취 - 천골전마취 - Caudal anesthesia
 척추마취 - 척수마취, 마비(1965) - Spinal anesthesia
 행킹드롭법, 현적법 - 물방울시험법, 물'방울시험법(1965)
 - Hanging-drop method
 지속(성)척추마취 - 연속척추마비(1965) - Continuous
 spinal anesthesia
 각성하기관내삽관법 - 의식화삽관법 - Awake intubation

② 용어가 같은 보기

마취 - 마취 - Anesthesia
 기초마취 - 기초마취 - Basal anesthesia
 전달마취 - 전달마취 - Conduction anesthesia
 경막외마취 - 경막외마취 - Epidural anesthesia
 전신마취 - 전신마취 - General anesthesia
 침윤마취 - 침윤마취, 마비 - Infiltration anesthesia
 국소마취 - 국소마취 - Local anesthesia
 비재호흡법 - 비재호흡법 - Nonrebreathing method
 표면(점막)마취 - 표면마취 - Topical anesthesia
 고빈도양압환기 - 고빈도양압환기 - HFPPV
 고빈도진동환기 - 고빈도진동환기 - HFO

(4) 생리학 관련용어

① 용어가 다른 보기

복식호흡 - 배숨(쉬기) - Abdominal respiration
 평활근 - 활평근 - Smooth muscle
 폐쇄성호흡 - 매킵호흡 - Obstructive respiration
 청색증 - 치아노제, 자남증 - Cyanosis
 혈관수축 - 피줄수축 - Vasoconstriction
 혈관확장 - 피줄확장 - Vasodilatation
 혈관이완 - 피줄긴장저하 - Vasorelaxation
 재분극 - 분극작용의 회복 - Repolarizing
 지속성기도양압 - 연속적가압호흡 - CPAP
 기이호흡 - 기이호흡 - Paradoxical respiration
 탄성 - 탄력성 - Compliance
 호흡곤란 - 숨가쁨 - Dyspnea

흡기 - 들숨, 흡기 - Inspiration
 호기 - 날숨, 호기 - Expiration
 여과 - 거르기 - filtration
 수분중독 - 물중독 - Water intoxication
 사구체여과 - 토리체려과 - glomerular filtration
 시토크롬 - 씨토크롬 - Cytochrome
 혈뇌장벽 - 피-뇌관문 - Blood-brain barrier
 $Na^+ - K^+$ 펌프 - $Na^+ - K^+$ 펌프 - $Na^+ - K^+$ pump
 유발점 - 압통점, 격발점 - Trigger point
 반사통 - 반사성아픔 - Reflex pain
 표면활성물질 - 술파탄트, 표면활성물질 - Surfactant
 비탈분극성 - 비탈분극성(분극류, 1965) - Nondepolarizing
 호흡곤란증후군 - 호흡난조증후군 -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성인성호흡곤란증후군 - 어른호흡긴박증후군, 젖은폐,
 울혈성무기폐, 쇼크폐, 출혈성폐증후 -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② 용어가 같은 보기

심박출량 - 심박출량 - Cardiac output
 산증 - 산증, 산독증 - Acidosis
 대상성의 - 대상성의 - Compensated
 심실세동 - 심실세동 - Ventricular fibrillation
 뇌압 - 뇌압 - ICP
 사강 - 사강 - Dead space
 비대상성의 - 비대상성의 - Uncompensated
 호흡 - 호흡 - Breathing
 간헐적양압호흡 - 간헐적양압호흡 - IPPB
 혈압 - 혈압, 맥박 - 맥박 - Pulse pressure
 중심정맥압 - 중심정맥압 - CVP
 폐허탈 - 폐허탈 - Lung collapse
 무기폐 - 무기폐 - Atelectasis
 단락 - 단락 - Shunt
 수분중독 - 물중독 - Water intoxication WPW
 증후군 - WPW 증후군 - WPW syndrome
 기능적잔기량 - 기능적잔기량 - Functional residual
 capacity
 환기혈류비 - 환기혈류비 - Ventilation-perfusion ratio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 Acetylcholinesterase

호기말양압호흡 - 호기말양압호흡, 양성종말호기압-EEP

(5) 해부학 관련용어

① 용어가 다른 보기

폐 - 폐 - Lung
 신경종말 - 신경끝 - Nerve ending

기도 - 호흡도, 기도 - Respiratory tract

혈관, 맥관 - 피줄 - Vessel

마미 - 말꼬리 - Cauda equina

늑골 - 늑골 - Rib

신장 - 콩팥 - Kidney

피부 - 살갓, 피부 - Skin

횡격막 - 가름막 - Diaphragm

흉막, 늑막 - 가슴막 - Pleura

모세혈관 - 모세핏줄, 실피줄 - Capillary

성대 - 성문 - Vocal cord

자율신경 - 식물신경 - Vegetative nerve

혈관 - 피줄 - Blood vessel

연구개 - 무른입천장 - Soft palate

후두개 - 회열 - Epiglottis

섬모 - 용모 - Cilia

히스근삭 - 히스속 - His's bundle

② 용어가 같은 보기

인두 - 인두

후두 - 후두

교감신경 - 교감신경

기관지 - 기관지

부교감신경 - 부교감신경

입술 - 입술

(6) 수술 관련용어

① 용어가 다른 보기

장폐쇄 - 장불통증 - Intestinal obstruction

유착태반 - 유착태반(맞붙은태) - Placenta accreta

제왕절개술 - 자궁절개해산술 - Caesarian section

자궁절제술 - 자궁적출술 - Hysterectomy

한랭수술 - 동결외과 - Cryosurgery

담낭적출술 - 담낭절제술 - Cholecystectomy

분절절제술 - 구역절제술 - Segmentectomy

피부절개 - 살갓절개 - Skin incision

항문경검사 - 홍문경검사 - Anoscopy

② 용어가 같은 보기

장절제술 - 장절제술 - Colon resection

문합 - 문합 - Anastomosis

복강경검사 - 복강경검사 - Laparoscopy

간절제술 - 간절제술 - Hepatectomy

헤르니아, 탈장 - 헤르니아 - Hernia

자궁외임신, 이소성임신 - 자궁외임신 - Ectopic pregnancy

(7) 심폐소생술 관련용어

① 용어가 다른 보기

심장마사지 - 심장마사지 - Cardiac massage

제세동기 - 탈세동기 - Defibrillator

흉관배액 - 가슴통배액 - Chest tube drainage

전벽경색 - 앞벽경색 - Anterior wall infarction

심장조율 - 심장페이싱 - Cardiac pacing

심폐소생술 - 심장구급소생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심장펌프기전 - 심장뿔뿔기전 - Cardiac pump mechanism

흉곽펌프기전 - 가슴통뿔뿔기전 - Thoracic pump

mechanism

접구인공호흡법 - 입과입날숨불어넣기 - Mouth to mouth breathing

구비인공호흡법 - 입과코날숨불어넣기 - Mouth to nose breathing

폐흉심장압박법 - 심장간접마사지 - External cardiac compression

② 용어가 같은 보기

심전도유도 - 심전도유도 - EKG lead

기흉 - 기흉 - Pneumothorax

혈흉 - 혈흉 - Hemothorax

농흉 - 농흉 - Thorax empyema

(8) 일반의학 관련용어

① 용어가 다른 보기

장점 - 우점, 우'점(1965) - Advantage

단점 - 결함 - Disadvantage

장단점 - 우결함 - Advantage and disadvantage

폐쇄 - 폐쇄 - Closed

부작용 - 우발증 - Side effect

노인 - 늙은이 - Oldman

색전 - 전자 - Embolus

치매 - 치매(바보, 치보) - Dementia

노화 - 노화(늙기) - Aging

바이러스 - 비루스 - Virus

체표면적 - 몸겉면적 - Body surface

전신 - 온몸 - Whole body

체중 - 몸질량 - Body weight

흉통 - 가슴통, 가슴아픔 - Chest pain

두통 - 머리아픔 - Headache

복통 - 배아픔 - Abdominal pain

치통 - 이쪼기 - Dentalgia

근육통 - 근통(힘살아픔) - Myalgia

심부전 - 심장부전 - Heart failure

심계항진 - 가슴두근거림 - Palpitation

부정맥 - 조물이상 - Arrhythmia

혈뇨 - 피오줌 - Hematuria
 수흉 - 가슴물 - Hydrothorax
 흉수 - 가슴물 - Pleural fluid
 복수 - 배물 - Ascites
 부종 - 부종(붓기) - Edema
 복막염 - 배막염 - Peritonitis
 근병증 - 근질병 - Myopathy
 대상포진 - 대상포행진 - Herpes zoster
 이환율 - 병결린율 - Morbidity
 관절염 - 환절염(마디염) - Arthritis
 중환자실 - 집중치료실 - ICU
 X선촬영 - 렌트겐촬영 - X-ray examination
 요검사 - 뇨검사(오줌검사) - Urine analysis
 포도당용액제 - 당질수액제 - Glucose solution
 사단 - 자름면 - Bevel
 생리식염수 - 생리적소금물 - Physiologic solution
 신생아 - 갓난아이 - Neonate
 스트레스, 긴장 - 스트레스, 긴장, 켁김 - Stress
 해독 - 독풀이 - Detoxification
 심장압전 - 심장탐포나데 - Cardiac tamponade
 ST분절 - ST단 - ST segment
 플라즈마네이트 - 플라즈마네트 - Plasmanate
 무뇨증 - 오줌못누기증(무뇨증) - Anuria
 혈액투석 - 배막투석 - Hemodialysis
 복막투석 - 배막투석 - Peritoneal dialysis
 아프가점수 - 아프가르점수 - Apgar score
 교차(적합)시험(법) - 혈액교차시험 - Cross matching
 구역과 구토 - 메스꺼움과 게우기 - Nausea and vomiting
 트렌델렌베르크체위 - 골반고위(Trendelenburg체위),
 트렌델렌부르크자세 - Trendelenburg position
 ② 용어가 같은 보기
 서맥 - 서맥, 느린맥 - Bradycardia
 흡인 - 흡인 - Suction
 카테테르 - 카테테르 - Catheter
 양와위 - 양와위 - Supine position
 쇄석위 - 쇄석위 - Lithotomy position
 슬주위 - 슬주위 - Knee-elbow position
 마취(과)의사 - 마취의사 - Anesthesiologist

고 찰

남북한의 마취과학 관련 용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우선 몇가지 점이 눈에 띄었다.

첫째로, 양쪽 모두 많은 용어가 한자어로 지어졌

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책들에서 한자로 용어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 한글로만 적어 놓았다(다만 예외로 대한마취과학회에서 발행한 영한 마취과학용어집만이 손톱뭉뚱으로 한자를 표기하였다). 그러므로 해서 한글세대는 마취과학 관련 서적과 용어를 손쉽게 읽을 수 있지만 한자세대에게는 눈에 익지 않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쪽 모두가 한자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용어가 그 어원을 알 수 없게 되어 원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 한자가 뜻글자인 것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한글세대는 용어를 뜻으로 알기보다는 용어 그 자체를 바로 익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용어를 토박이말로 만드는 것이 더욱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남한쪽에서는 대한의협이 중심이 되어 의학용어 표준화 정리 작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북한쪽에서는 1966년 말다듬기운동으로 의약학분과위원회에서 의학용어에 대한 정리작업이 있었다. 그러나 양측 모두에서 용어를 표준화하는데는 힘을 기울였지만 아직 토박이말로 바꾸는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남한쪽에서는 거의 일본용어를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용어제정위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박이말로 된 용어 만들기과 연구가 모자랐고, 북한쪽은 부분적으로 토박이말로 바꾼 것이 돋보였는데 이것은 북한쪽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언어정책을 다룬 결과로 보인다.

그렇지만 양쪽 모두가 일본용어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서 굳어지고 있는 듯하였는데, 이것은 서양의학 지식과 기술에서 역사적으로 계속 선진국에 뒤떨어져 있어 일제시대에는 독일의학과 일본의학, 그리고 한국전쟁 후로는 미국, 러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흔적이 용어들에 그대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점은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하다.

둘째로, 남북한 모두가 필요에 따라 용어에 손톱뭉뚱으로 영어용어를 표기해 놓았다. 한글을 전용하는 것에 대하여 남한쪽은 한글세대가 대부분의 독서인구를 구성함에 따라 시대적 추세에 의해, 북한쪽에서는 주체사상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특이한 점은 북한쪽에서도 제법 많은 용어에 영어를 적어 놓았다는 것이다. 보기를 들면 경막외마취(epi-

dural anesthesia), 숙씨널콜린콜로리드(SCC), 확산(diffusion), 반폐쇄법(semiclosed method)식으로 영어로 용어의 토를 달아 놓았다. 심지어는 CPD(아두골반 불균형), NLA(신경이완마취)로 영어만 적어 놓고 있기도 하여, 북한이 반미를 주장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다. 아마도 북한쪽 마취전문가들(마취과 의사)^{21,24)}이 영어원서를 보고 있고, 북한 의료계에서 영어용어를 원어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정하게 하였다. 또 다른 보기로 북한의 마취관련 호흡생리 분야에서 보면 SIMV, PEEP, CPAP, FRC, IRV, Bennett MA-1B, Elema servo 900B, Bourne BP 200, Bennet PR-2, Loosco, PaCO₂, PaO₂, CaO₂, RDS, I:E ratio, FiO₂ 등으로 눈에 익숙한 영어단어를 금방 알아 볼 수 있었다²³⁾. 의외로 영어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말 뜻밖이었다.

셋째로, 양쪽 모두가 마취 관련 책들이 서울과 평양에서만 각각 출판된 것으로 보아 양쪽에서 마취 관련 정보나 기술의 확산이 수도 중심적인 구조인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남한쪽에서는 지방화 시대로 가면서 어느 정도 수도 중심적인 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북한쪽은 당분간 뚜렷한 변화가 금방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남북한에서 모두 서양에서는 보편화된 개념에 속하는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TQM(total quality management), 레이저, 뇌사 등에 대한 용어를 찾을 수 없었고 또한 마취행위와 연관되는 의료윤리에 관한 용어는 전혀 없었다. 새로운 첨단의학 개념에 속하는 의료기술의 개발이나 체계가 소개되었을 때 양쪽 모두 아직 신속하게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남한쪽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소개되거나, 장비가 들어오면 적절한 용어가 있어야 함에도 영어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점은 북한쪽도 별로 차이가 없는 듯하였다.

북한쪽에서는 경제적 요인으로 장비의 소개가 늦을 수 있고, 윤리나 CQI/TQM, 뇌사와 같은 문제는 중앙통제 관리체제에서 손쉽게 적용되기 어려우리라 믿어진다. 특히 북한쪽에서 감시기구에 관한 언급이 별로 없는 것은 감시장비에 관한 저자들의 정보의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감시장비가 제대로 소

개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추정하기가 힘들었다. 그렇지만 중환자 치료에 관한 문헌^{21,23)}에서도 언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자의 생리적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에 있어서 미흡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호기말양압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호기말양압밸브가 있는 호흡기가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집중치료실”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때 중환자실이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최²³⁾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1960년대 이후부터 집중치료실(중환자실)이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증치료실”에 대한 용어를 발견할 수 없어 운영여부를 용어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북한의료 조직표에서도 찾을 수 없었는데 동의과(한의학 취급과)에서 통증문제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짐작되었다²⁴⁾.

다섯째로, 북한쪽 마취관련 책에서 특이한 것은 침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의 마취전문가는 한의학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거나 동의과와 협의진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쪽에서는 동의학(한의학)과 신의학(서양의학)²⁴⁾으로 구분은 하되 동의학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마취관련 부분에 한의학 처방이나 침에 대한 기술을 간혹 볼 수 있었다.

또 이념이나 사상에 관한 언급은 대부분 김일성의 교시를 서문 또는 각 장의 첫부분에 인용하였고 본문에는 “합병증과 그와의 투쟁(1965)¹²⁾”, “치료전술, 투쟁대책²¹⁾과 같은 호전적이 말이 어찌다 있었지만 본문에서는 의학에 관한 논의만 있는 것은 남한쪽과 차이가 없었다.

특이한 점으로는 모든 책마다 문헌인용에 대한 표시와 참고문헌, 찾아보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서양문헌을 많이 참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성의 문제와 독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과학서적으로는 대단히 큰 약점이 아닐 수 없었다.

이상의 전체적인 몇 가지 사항 외에도 구체적인 용어사용에 있어서 토박이말로 된 용어는 북한쪽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볼 수 있었다. 남한쪽에서는 1988년 마취과학 용어집을 만들면서 일본 것을 약간 다듬어 옮긴 것 외에 그 후로 별다른 힘을 쏟

고 있지 않은 관계로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북한쪽에서 토박이말로 용어를 바꾸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노제 - 오줌내기약, 간경변 - 간굳어지기증, 서맥 - 느린맥, 구역과 구토 - 메스꺼움과 계우기”와 같이 토박이말로 표현하면서 뜻은 알기 쉽게 되었지만, 낱말이 길어져서 사용에 불편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말의 낱말이 용어를 전부 토박이말로 바꾸기에는 풍요롭지 못한 것에도 일부의 원인이 있으리라고 짐작되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토박이말을 만들어 짧고 간편하게 용어를 다듬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

또 남북한 용어에 있어서 일본식 용어, 독일식 발음 용어 및 영어용어는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었고, 북한쪽에는 러시아식 발음의 용어가 자주 보인 것은 남한 용어와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었다. 양쪽 모두 서양의학의 지극히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으나 수입 의학이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용어에 대한 연구보다 많이 진행되어 이러한 현상을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로 보인다.

드물게는 북한쪽 용어에 “스타일렛, 탐침 - 만도린 - Stilet, stilette, stylet, stylette, 남한쪽 용어 없음 - GOF(아산화질소+산소+할로탄), GOE(아산화질소+산소+에테르), 청색증 - 자남증 - Cyanosis” 등과 같은 용어들이 있어서 용어를 그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문맥상이나 토를 달은 것을 보고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가 있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책 속에서 전혀 알 수 없는 용어는 거의 없는 편이었다. 그러므로 용어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이어서 북한 마취과학 관련 책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쪽에서 통증을 완전히 토박이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남한쪽에서는 “-통, 동통, 통증”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쪽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용어의 만들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남한쪽은 연구가 부족한 듯한 한가지 보기가 될 듯 싶다. 이러한 표현에 있어서 토박이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는 것은 환자들이 직접 느끼는 감정을 알기 쉽게 표현하여 의사와 환자간에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마취과학 관련 용어로 생리학, 약물, 마취기구와 장비, 해부학, 일반 의학 용어 등에서 일부 용어는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이해가 가능한 범위의 용어임을 알 수 있었다. 단지 약물용어 일부에서 상품명인지 아닌지 불명확하고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대충 짐작은 할 수 있는 정도였다. 양쪽 모두 용어의 표준화와 체계화가 부족하고 영어용어를 많이 빌려다 쓰며 또한 책마다 조금씩 용어가 다른 현상이 자주 보이는 것은 양쪽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였다.

결론적으로 아직 남북한 마취과학 관련 용어를 비교해 보았을 때 몇 가지 특이하거나 다른 용어들이 있었지만 아직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 용어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용어 쓰기 마당은 어떤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한글로 된 책을 읽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는 것은 우리용어와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한마디로 지적해 주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다. 한자로 된 용어를 단지 한글로만 옮겨 놓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뜻을 새기지 못하여 그냥 어렵고 생소하게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한글로 된 용어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영어로 토를 달아 번역하는 일은 차츰 없어야 할 짐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남북한 용어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우리 용어를 가다듬고 손질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로 다음세대로 넘어가기 전에 정보화에 지장이 없도록 용어를 다듬고 간추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그 방향은 남북한 사이에 공통 접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토박이말을 가능한 많이 사용해야 동질성의 회복과 장차 통일 후에도 이질감을 줄여 나가는 길이 되리라고 믿어진다. 그러므로 마취과학 관련 용어 다듬기에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대한마취과학회. 영한 마취과학용어집. 서울, 의학문화사. 1988, pp 전문참고
2. 대한마취과학회. 대한마취과학회지색인집(1968-1992).

- 서울, 성균문화사. 1994, pp 전문참고
3. 대한의학협회. 의학용어집. 서울, 도서출판 아카데미. 1992, pp 전문참고.
 4. 대한마취과학회. 마취과학. 개정 3판, 서울, 여문각. 1994, pp 486-514.
 5. 전재규. 척추마취의 임상. 서울, 학문사. 1988, pp 199-203.
 6. 대한통증학회. 통증의학. 서울, 군자출판사. 1995, pp 413-25.
 7. 김동수, 김광우. 마취과학포인트. 서울, 군자출판사 1992, pp 309-90.
 8. 김성덕. 소아호흡관리. 서울, 군자출판사. 1995, pp 349-62.
 9. 이우주. 영한의학사전. 서울, 아카데미서적. 1993, pp 전문참고
 10. 김원옥. 마취과학 특강. 서울, 한서의학사. 1991, pp 1-372.
 11. 김원옥, 김진호, 남순호, 박윤근, 신양식 역. 혈액가스분석의 임상적용. 서울, 한서의학사. 1994, pp 419-35
 12. 마군필. 마취학. 평양, 의학출판사. 1965, pp 1-320.
 13. 6개국어 의학용어사전(라-조-로-영-독-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pp 전문참고.
 14. 리룡성. 영조의학용어 조성사전. 평양, 외국문도서관출판사. 1991, pp 전문참고.
 15. 산부인과진서 10. 수술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pp 29-67.
 16.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p 전문참고.
 17. 대한의협 의학용어세미나. 대한미생물학회(1993. 3. 9), 대한병리학회(1993. 11. 30), 대한소아과학회(1994. 3. 17), 대한피부과학회(1994. 4. 8). pp 1-43, pp 1-120.
 18. 한재경. 심폐소생술.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5, pp 전문참고.
 19. 외과전서편찬위원회. 외과전서 11, 복부편(2).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pp 전문참고. 8, 경흉부외과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pp 전문참고.
 20. 리영구. 요통의 임상.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6, pp 전문참고.
 21. 마동준. 내과소생과 집중치료.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6, pp 전문참고.
 22. 한재경. 구급부정맥.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pp 전문참고.
 23. 최규렬. 갓난아이집중치료. 평양, 의학과출판사. 1991, pp 95-101.
 24. 승창호 외. 북한보건의료연구. 서울, 도서출판 청년세대. 1989, pp 160-3.
-